

*가입신청서는 팩스로 보내셔도 됩니다. 02)2679-3714

이름	한문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센터명	업체명	직책 내근 ☐ 외근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음 ☐ 양 ☐)	성별 : 남 ☐ 여 ☐	입사년월일	년 월 일
조합비 (통상임금 1%)	월 15,000 원 ※삼 성전 자서비 스지 회안정 후 추후 통상 임금 1%로 재산정 예정		월 통상임금	기재하지 않음 원
경력 사항				
바 라 는 점				

본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등에 찬성하고, 규약 및 제 규정·규칙 준수 및 금속노동자의 통일단결과 금속노조 확대·강화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규약 제2장 제2조, 제9조에 따라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일 일

신청인 (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권역별 담당자 연락처 | 전국 010-6741-8818 위영일 010-4220-5442 라두식 서울 010-5480-4011 이웅철 인천 010-6777-5446 엄창섭 경기 010-7334-0619 박성주 강원 010-8547-8609 하윤무 중부 010-4069-1400 최종혁 서부 010-9153-6517 유송기 경북 010-6666-4002 최경환 남부 010-9159-6778 관혁수

“노동조합 해봤자
쥐뿔도 나아지는거 있어?”



뼈에 사무치는 동료의 질문을 들은 적 있습니다.

“삼성이란 회사가 얼마나 지독한데, 노동조합을 하겠다 그러냐”,
“생존권이나 인권다운 꿈도 꾸지말고 주는대로 받아먹자”,
“일단 지켜보다가 나중에 판단하겠다”,
이런저런 대답도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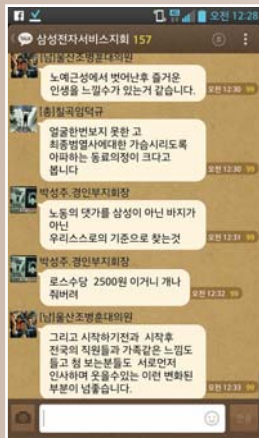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간 표적감사, 생계압박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개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다 버렸는데 끝까지 가보겠다고 다짐하는 동료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여건 센터들에서 집단가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국 엔지니어들의 노동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의 동료 최충범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사측에 댕땡이 요구할 수 있어서 좋아요”
 “사측도 우리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주구요”
 “동료들끼리 금전적으로 경쟁하다가 이제 서로 위해주고 걱정해주는 참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ㅎㅎ”
 “본사의 억지스러운 실적에 당당해질수있죠”
 “삼성의 소모품에서 삼성의 노동자로...”
 “토요일 근무자율화”
 “말갈지도 않은 cmi 미결 미인도 실적 남의집 얘기”
 “사장의 개소리 안들어서 좋습니다”
 “cs에 대한 인민재판 파괴”
 “cs뿐아니고 무상자재비를 왜 우리가 관리합니까!”
 “스스로 엔지니어 권리찾기”
 “다른센터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젠 작은 아픔도 같이 나눌수 있는 가족같은 동지가 생긴것!”
 “조합원들은 투쟁의지만땅 즐거운 표정. 바지이하 비조합원들은 불안한 표정”

노동조합 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전국의 일선 엔지니어들이 삼성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60여개 센터에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만들어지고 나야지는 것들 직접 느끼셨을 겁니다.

CS교육이 사라졌고, 주말근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긴장한 사측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변명을 늘어놓는것도 보셨을 겁니다.

동래에서, 아산에서!

노동조합 탄압을 엔지니어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물리쳤습니다.

분당에서, 포항에서!

지역분할, 일감빼기 시도를 당당하게 물리쳤습니다.

영등포에서!

지역주민들의 연대로 악질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센터에서 바지사장들의 횡포를 물리쳤습니다!

이제부터 뺨겨주겠다, 지원금이 늘어난다 말은 많지만

회사는 언제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때에만 움직일 뿐입니다.

가만히 앉아 위에서 던져줄 기다리는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래는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경쟁하며 일하는 일터,

우리가 서로 뭉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애니콜CSP 최명우

“토요근무, 해피콜!
 더 이상 이렇게 살고싶진
 않습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삶을 지킵시다!”



IT엔지니어 조대철

“주말엔 꿈 수자꾸요!
 우리가 뭉쳐야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전외근엔지니어 김기호

“최종범 열사의 꿈이
 우리 모두의 꿈!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국이
 뭉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어느새 투사가 된 1천5백 조합원들의 힘과 사회적 여론이 모두 우리의 편입니다.

무노조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권역별 법률지원단이 센터마다 일어난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처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매일 수백만원씩 투쟁기금이 모이고 있으며 사회 곳곳의 연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소모성 부품으로 치부받던 사람이 당당히 인간임을 선언하는 곳 입니다.

노동조합은 빼앗긴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쟁취하는 곳 입니다.

노동조합은 찢어발겨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곳 입니다.

함께 합시다!

더 많은 센터에서, 더 많은 엔지니어가 뭉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탐욕스런 입에 갇다 바치는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

바지사장들이 몰래 빼먹는 우리 권리, 되찾아옵니다!

전국 37개 센터에 임단협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단협이 진행 중입니다.

단체협약 쟁취로 우리들의 삶을 지킵시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1천5백명이 3천명이 되고 3천명이 5천명이 될수록 승리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두려운 마음을 떨쳐 내어 함께 손잡고

자부심으로 일하고 사람답게 사는 일터를 만들어 나갑시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위영일

